



## 이슈리포트

# 2011년 2분기 수출기업 체감지수와 수출기업 애로사항

이재우/산업투자조사실 선임연구원

이지아/산업투자조사실 책임조사역

- |                        |                                     |
|------------------------|-------------------------------------|
| I. 수출기업 체감지수           | II. 2011년 2분기 수출기업 업황개선·악화 원인과 애로사항 |
| 1. 2011년 2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 | 1. 수출업황 개선과 악화 원인                   |
| 2. 2011년 3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 | 2. 수출기업 애로사항                        |

### 요약

## 1. 2011년 2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

- 2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수출물량 증가와 수출채산성 개선으로 전기(98)보다 상승한 102를 기록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전기(89)보다 상승한 97을 기록하여 기업들의 수출채산성이 전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수출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생산원가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채산성이 개선됨.
  -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플랜트, 선박, 섬유류 산업 등의 수출증가폭이 증가하여 전기(104)보다 상승한 110을 기록함.
  - 자금사정 평가지수는 대기업 109, 중소기업 96을 기록, 전기(100, 95) 대비 자금사정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모두 개선됨.



## 2. 2011년 3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

- 2011년 3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는 108으로 2분기(116)보다 하락, 수출기업들은 3분기 수출업황이 2분기보다 다소 악화될 것으로 전망
- 수출채산성 전망지수는 105로 2분기(107)보다 하락하여 수출기업들은 수출채산성이 현재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수출물량 전망지수는 116으로 전기(124)보다 하락하여, 기업들은 수출물량 증가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자금사정 전망지수는 전기와 같은 106으로 수출기업들은 자금사정이 전기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3. 수출기업 업황개선·악화 원인과 애로사항

- 2011년 2분기 중 수출업황이 개선된 기업은 26.2%이며, 악화된 기업은 20.3%
- 수출업황 개선 기업의 업황개선 원인으로는 수출대상국의 경기개선에 따른 상품수요 증가(74.8%)와 상품경쟁력 상승(36.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한편, 수출업황 악화 기업의 업황악화 원인으로는 수출대상국 경기둔화에 따른 상품수요 감소(48.9%)와 가격경쟁력 하락(43.5%)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수출수요 판단의 경우 산업과 지역에 따라 기업별로 편차가 커서, 수출경기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분기 중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은 원자재 가격 상승(69.6%), 원화환율 불안정(65.9%) 및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38.5%)임.



## 수출기업 체감지수

### 1. 2011년 2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

□ 2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기(98)보다 상승한 102를 기록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와 수출물량 평가지수가 모두 상승함에 따라 전반적인 수출업황이 전기 대비 개선됨.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전기(89)보다 상승한 97을 기록, 기업들의 수출채산성이 전기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 생산원가 평가지수가 전기(134)보다 11포인트 하락한 123을 기록한 반면, 수출단가(원화 기준) 평가지수는 109에서 104로 소폭 하락하여 채산성이 개선됨.
    - 원/달러 환율이 전기 대비 하락함에 따라 수출단가(원화 기준) 평가지수가 하락함.
    - ※ 원/달러 환율 추이(기간평균): 2010년 3분기 1,186 → 2010년 4분기 1,133 → 2011년 1분기 1,120 → 2011년 4월 1일~6월 20일 1,084
    - 생산원가 평가지수는 4월 중순 이후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락으로 큰 폭으로 하락함.
-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플랜트, 섬유, 섬유류 산업 등의 수출증가 폭이 증가하여 전기(104)보다 상승한 110을 기록함.
  - － 수출계약 평가지수도 전기(103)보다 상승한 110을 기록하여 수출업체들의 계약 성사 건 수의 증가 폭이 전기 대비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자금사정 평가지수도 섬유류, 석유화학, 기계류 산업 등을 중심으로 상승하여 전기(96)보다 다소 증가한 99를 기록함.



&lt;표 1&gt;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구 분	2009			2010				2011	
	2/4	3/4	4/4	1/4	2/4	3/4	4/4	1/4	2/4
수출업황 평가지수	97	112	103	110	117	109	102	98	102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93	102	94	98	113	103	94	89	97
수출단가 평가지수	87	98	92	95	112	103	100	109	104
생산원가 평가지수	104	109	105	109	119	115	116	134	123
수출물량 평가지수	106	112	108	111	122	112	104	104	110
수출계약 평가지수	105	112	109	111	122	112	105	103	110
자금사정 평가지수	n/a	107	103	100	108	106	102	96	9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업황이 중소기업보다 더 개선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업황평가지수는 각각 105, 101로 전기(대기업 99, 중소기업 98) 대비 대기업의 상승 폭이 더 크게 나타남.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대기업 96, 중소기업 97을 기록, 전기(대기업 93, 중소기업 87)보다 중소기업의 채산성이 더 크게 개선됨.
-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대기업 112, 중소기업 110을 기록, 전기(대기업 103, 중소기업 104)보다 수출물량 증가율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개선됨.
- 자금사정 평가지수는 대기업 109, 중소기업 96을 기록, 전기(대기업 100, 중소기업 95) 대비 자금사정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모두 개선됨.

## □ 산업별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섬유류, 선박 등이 크게 개선

- 섬유류는 20포인트 이상, 선박 산업은 6포인트 전기 대비 상승한 반면, 플랜트 산업 업황은 악화됨.
- 산업별 수출채산성 지수는 섬유류가 20포인트 이상 석유화학, 선박 등이 2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여 해당산업의 채산성 개선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플랜트(117), 기계류(103), 자동차(100), 선박(100) 등의 산업이 기준치(100) 이상을 기록함.
- 산업별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플랜트 산업이 전기보다 20포인트 이상 상승하여 수출물량 증가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자금사정 평가지수는 섬유류, 석유화학, 기계류, 자동차 등 산업을 중심으로 전기보다 상승하여 자금사정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수출지역별 업황평가지수는 동남아, 중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상승

○ 수출지역별 업황평가지수는 중남미가 30포인트 이상, 유로, 미국 등은 10포인트 이상, 일본은 10포인트 이내로 상승함.

○ 수출지역별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중남미, 유로 등에서 20포인트 이상, 미국에서 10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등 중국과 동남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기보다 상승함.

○ 수출지역별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동남아와 중국을 제외한 유로, 중남미, 일본, 미국 등에서 10포인트 이상 상승하여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기보다 상승함.

○ 자금사정 평가지수는 동남아와 중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수출기업이 상승함.

<표 2> 2011년 2분기 기업규모 · 업종 · 지역별 평가지수

구 분		수출업황 평가지수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수출물량 평가지수		자금사정 평가지수	
		2011 1/4	2011 2/4	2011 1/4	2011 2/4	2011 1/4	2011 2/4	2011 1/4	2011 2/4
규모별	대 기 업	99	105	93	96	103	112	100	109
	중 소 기 업	98	101	87	97	104	110	95	96
업종별	석 유 화 학	92	97	76	95	96	108	94	100
	철강 및 비철금속	104	98	90	88	110	103	103	103
	전 기 · 전 자	97	100	89	93	100	111	93	95
	기 계 류	103	108	90	103	111	113	98	102
	자동차(부품포함)	98	100	96	100	111	113	100	103
	조 선	100	106	82	100	100	113	95	88
	섬 유	76	101	71	93	91	104	85	98
	플 랜 트	110	100	110	117	90	117	100	83
	미 국	97	107	88	100	100	113	95	100
지역별	중 국	96	93	93	90	107	101	99	94
	일 본	97	104	89	95	100	114	94	100
	유 로	99	111	83	103	105	123	98	105
	동 남 아	109	96	97	94	111	103	102	96
	중 남 미	90	122	80	100	100	117	85	111

자료: <표 1>과 같음.



## 2. 2011년 3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

□ 3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는 108로 2분기(116)보다 하락

- 수출기업들은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경기회복 둔화 가능성으로 3분기 수출업황이 2분기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함.
- 수출채산성 전망지수는 105로 2분기(107)보다 소폭 하락하여 수출기업들은 수출 채산성이 현재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함.
- 수출물량 전망지수는 116으로 전기(124)보다 하락하여, 기업들은 전기보다 수출 증가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자금사정 전망지수는 전기와 같은 106을 기록, 수출기업들은 자금사정이 전기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함.

□ 기업규모별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보다 전기 대비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

- 수출채산성 전망지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전기 대비 채산성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함.

<표 3>

수출업황 전망지수 추이

구 분	2009			2010				2011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수출업황 전망지수	107	112	117	110	123	117	113	106	116	108
수출채산성 전망지수	106	105	108	101	108	111	106	101	107	105
수출단가 전망지수	103	97	99	97	100	105	102	102	109	102
생산원가 전망지수	110	103	105	106	110	110	109	112	125	111
수출물량 전망지수	110	117	118	112	129	121	114	110	124	116
수출계약 전망지수	111	117	118	111	129	121	113	109	123	116
자금사정 전망지수	n/a	n/a	111	103	111	110	106	101	106	106

자료: <표 1>과 같음.



- 수출물량 전망지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하락하였고, 수출증가율 둔화는 대기업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됨.
- 자금사정 전망지수는 대기업 109, 중소기업 106을 기록, 전기(대기업 108, 중소기업 106) 대비 대기업이 소폭 상승하여 자금사정이 개선될 것으로 나타남.

#### □ 산업별 수출업황 전망지수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악화

- 섬유류를 제외한 플랜트, 철강 및 비철금속, 전기전자, 석유화학 등 대부분의 산업이 하락함.
- 산업별 수출채산성 전망지수는 선박, 섬유류 산업은 상승한 반면, 철강 및 비철금속, 전기전자, 자동차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하락하며 수출채산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수출물량 전망지수도 선박, 섬유류 산업은 상승한 반면, 철강 및 비철금속, 자동차, 플랜트, 전기전자, 석유화학, 기계류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하락하며 내년 3분기 수출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자금사정 전망지수는 기계류, 섬유류,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을 제외한, 선박, 석유화학, 전기전자, 플랜트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하락하여 자금사정이 대체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 수출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하락

- 수출기업은 중국, 동남아, 미국, 유로, 중남미, 일본 등 모든 지역의 수출업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수출지역별 수출채산성 전망지수는 미국과 중남미 지역을 제외한 일본, 중국, 동남아, 유로 등 모든 지역이 하락하여 수출채산성이 전반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수출물량 전망지수는 중남미, 미국, 일본, 중국, 유로, 동남아 등 모든 지역이 크게 하락하여 수출증가율 하락이 예상됨.
- 자금사정 전망지수는 동남아를 제외한 일본, 중남미, 미국 등 대부분 지역에서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lt;표 4&gt; 2011년 3분기 기업규모 · 업종 · 지역별 전망지수

구 분		수출업황 전망지수		수출채산성 전망지수		수출물량 전망지수		자금사정 전망지수	
		2011 2/4	2011 3/4	2011 2/4	2011 3/4	2011 2/4	2011 3/4	2011 2/4	2011 3/4
규모별	대 기 업	118	108	107	102	125	115	108	109
	중 소 기 업	116	109	107	106	124	117	106	106
업종별	석 유 화 학	109	99	103	101	116	111	106	103
	철강및비철금속	119	104	109	99	126	108	106	108
	전 기 · 전 자	123	110	114	108	129	117	108	105
	기 계 류	117	115	109	107	127	123	104	110
	자동차(부품 포함)	113	104	103	98	123	107	102	102
	조 선	109	103	91	106	109	119	118	106
	섬 유	110	113	96	110	118	127	100	103
	플 랜 트	130	108	110	108	140	125	110	108
지역별	미 국	120	110	105	107	128	117	106	108
	중 국	115	105	109	104	125	117	105	105
	일 본	114	110	107	100	123	112	103	108
	유 로	121	115	113	108	129	122	111	111
	동 남 아	115	104	103	99	122	116	112	104
	중 남 미	105	100	110	111	125	111	90	94

자료: &lt;표 1&gt;과 같음.





## Ⅱ

## 2011년 2분기 수출기업 업황개선·악화 원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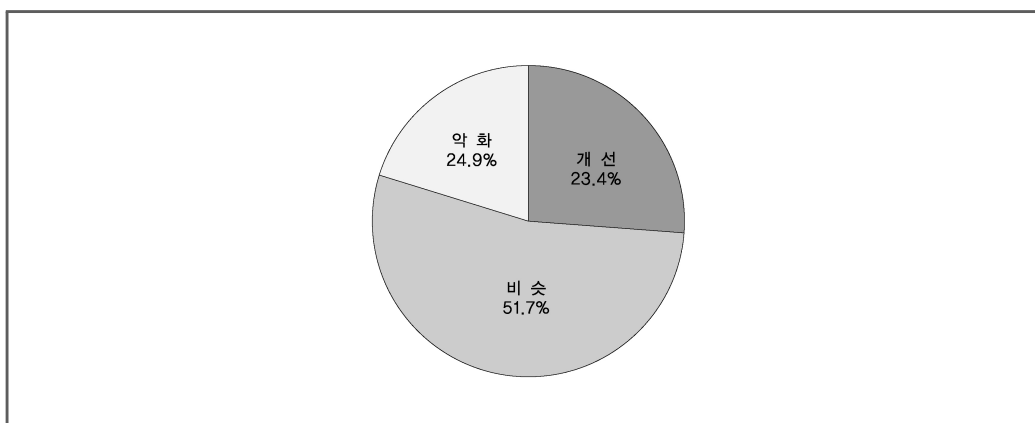
### 1. 수출업황 개선과 악화 원인

□ 2011년 2분기 중 수출업황이 악화된 기업이 개선된 기업보다 다수

- 업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26.2%, 악화되었다는 기업은 20.3%로 나타남.
- 전기(개선 23.4%, 악화 24.9%)보다 수출업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의 수는 증가하고,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의 수는 크게 감소함.
- 나머지 53.5%는 수출업황이 2011년 1분기와 비슷하다고 답하여, 비슷하다고 체감한 기업의 수가 전기(51.7%)보다 증가함.
- 산업규모별로는 개선된 기업 중에서 대기업 비중이 중소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산업분류별로는 선박, 전기전자, 섬유류, 기계류, 자동차 산업이 업황개선 기업의 비중이 악화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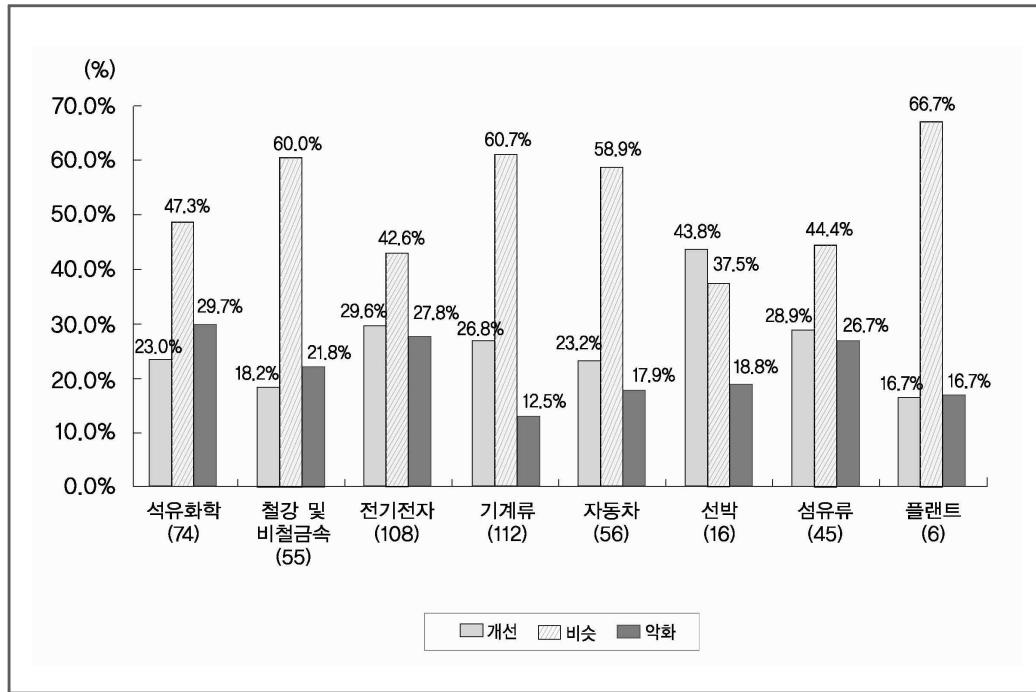
수출기업의 업황개선 및 악화 분포



주: 총 기업 수는 454개임.  
자료: <표 1>과 같음.



&lt;그림 2&gt; 산업별 수출기업의 업황개선 및 악화 분포



자료: <표 1>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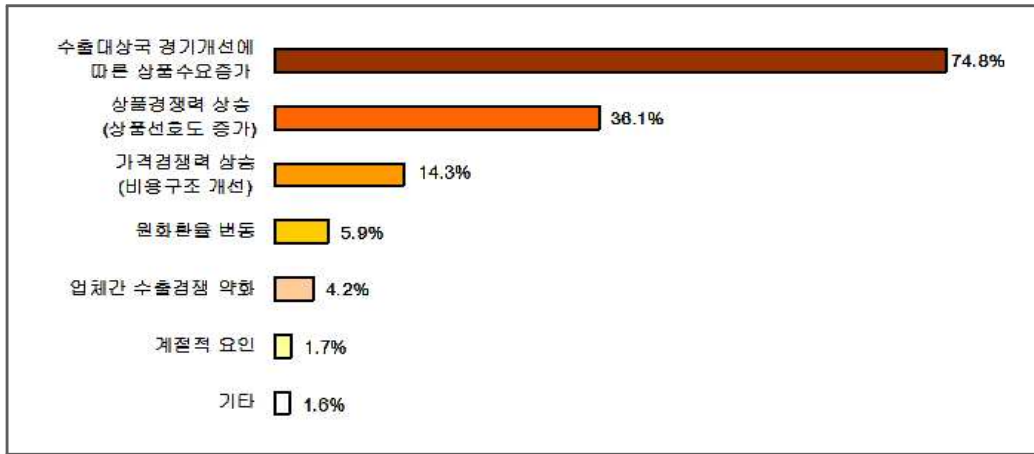
#### □ 수출기업 업황개선의 원인은 수출대상국의 경기개선에 기인

- 수출업황 개선기업은 업황개선 원인으로 수출대상국의 경기개선에 따른 상품 수요 증가(74.8%)와 상품경쟁력 상승(36.1%)을 선택함(복수응답).
- 선박(100.0%), 플랜트(100.0%)를 비롯하여, 자동차(84.6%), 전기전자(84.4%), 기계류(83.3%), 철강 및 비철금속(70.0%), 석유화학(52.9%) 등 대부분 산업에서 업황개선의 주요 원인으로 수출대상국의 경기개선에 따른 상품수요 증가를 지적함.
- 플랜트의 경우 상품경쟁력 상승(100.0%)도 개선요인으로 꼽고 있음.



&lt;그림 3&gt;

2011년 2분기 수출업황 개선 요인



주: 업황개선 기업 수는 119개임.

자료: <표 1>과 같음.

&lt;표 5&gt; 2011년 2분기 기업규모 · 산업별 · 지역별 수출업황 개선 요인 (복수 응답)

단위: %

구 분		상품 경쟁력 상승	가격 경쟁력 상승	수출 대상국 경기개선	업체간 수출 경쟁 약화	원화 환율 변동	계절적 요인
규모별	대 기 업	32.4	23.5	64.7	5.9	11.8	0.0
	중 소 기 업	37.6	10.6	78.8	3.5	3.5	2.4
업종별	석 유 화 학	41.2	35.3	52.9	0.0	23.5	0.0
	철강 및 비철금속	30.0	30.0	70.0	0.0	10.0	0.0
	전 기 · 전 자	31.3	6.3	84.4	6.3	6.3	0.0
	기 계 류	33.3	6.7	83.3	3.3	0.0	3.3
	자동차(부품 포함)	23.1	7.7	84.6	7.7	7.7	0.0
	조 선	42.9	14.3	100.0	0.0	0.0	0.0
	섬 유	53.8	23.1	46.2	7.7	0.0	7.7
	플 랜 트	100.0	0.0	100.0	0.0	0.0	0.0
지역별	미 국	35.0	20.0	67.5	5.0	5.0	5.0
	중 국	29.4	11.8	82.4	11.8	5.9	0.0
	일 본	26.7	6.7	80.0	6.7	13.3	0.0
	유 로	44.0	12.0	76.0	0.0	8.0	0.0
	동 남 아	50.0	25.0	75.0	0.0	0.0	0.0
	중 동	33.3	0.0	83.3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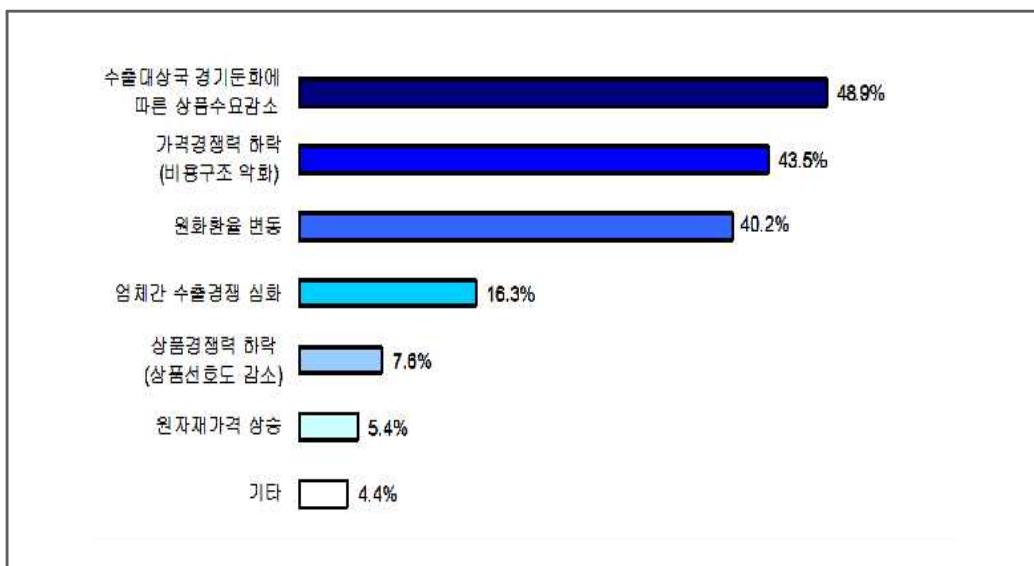
자료: <표 1>과 같음.



## □ 수출업황 악화의 원인은 상품수요 감소와 가격경쟁력 하락에 기인

- 수출업황 악화기업의 악화 원인으로는 수출대상국 경기둔화에 따른 상품수요 감소(48.9%)와 가격경쟁력 하락(43.5%)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복수응답).
- 선박(66.7%), 전기전자(60.0%), 섬유류(58.3%), 기계류(50.0%) 등 대부분의 산업이 수출대상국 경기둔화에 따른 상품수요 감소가 업황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응답함.
  - 수출수요의 산업별, 상품별, 지역별 편차가 커서 기업들의 수출수요에 대한 판단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플랜트의 경우 수출업황이 악화된 요인으로 가격경쟁력 하락(100.0%) 외에도, 원화 환율 변동(100.0%)을 꼽고 있음. 석유화학(63.6%)과 철강 및 비철금속(50.0%)의 경우 첫 번째로 가격경쟁력 하락을 꼽고 있음.

<그림 4> 2011년 2분기 수출업황 악화 요인



주: 업황악화 기업 수는 92개임.  
자료: <표 1>과 같음.



&lt;표 6&gt; 2011년 2분기 기업규모 · 산업별 · 지역별 수출업황 악화 요인 (복수 응답)

단위: %

구 분		상품 경쟁력 하락	가격 경쟁력 하락	수출 대상국 경기악화	업체간 수출 경쟁 심화	원화 환율 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
	대 기 업	9.5	33.3	61.9	23.8	23.8	0.0
	중 소 기 업	7.0	46.5	45.1	14.1	45.1	7.0
업종별	석 유 화 학	9.1	63.6	40.9	18.2	45.5	0.0
	철강 및 비철금속	16.7	50.0	41.7	16.7	25.0	16.7
	전 기 · 전 자	3.3	33.3	60.0	23.3	40.0	6.7
	기 계 류	0.0	28.6	50.0	7.1	35.7	7.1
	자동차(부품 포함)	0.0	30.0	30.0	10.0	70.0	10.0
	조 선	33.3	33.3	66.7	0.0	33.3	0.0
	섬 유	8.3	50.0	58.3	16.7	25.0	0.0
	플 랜 트	0.0	100.0	0.0	0.0	100.0	0.0
지역별	미 국	4.2	41.7	37.5	25.0	45.8	4.2
	중 국	14.3	46.4	46.4	21.4	46.4	0.0
	일 본	0.0	40.0	70.0	10.0	30.0	20.0
	유 로	10.0	30.0	70.0	10.0	20.0	10.0
	동 남 아	0.0	41.7	33.3	8.3	50.0	8.3
	중 남 미	50.0	100.0	0.0	0.0	50.0	0.0

자료: &lt;표 1&gt;과 같음.

## 2. 수출기업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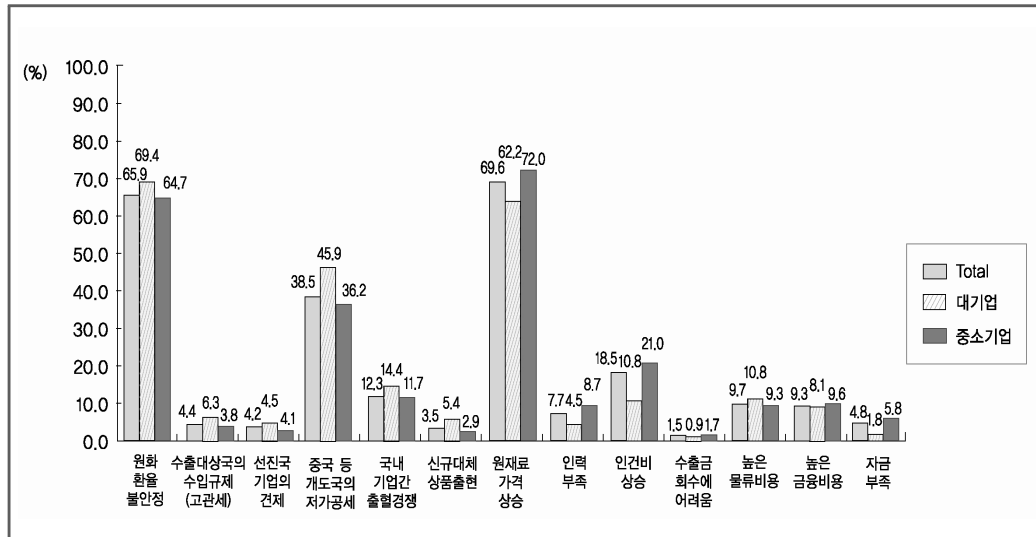
### □ 수출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원화 환율 불안정

- 수출기업은 수출의 애로사항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69.6%), 원화 환율 불안정(65.9%),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38.5%)를 꼽고 있음.
- 원화 환율 불안정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한 기업의 비중이 전기(63.8%)와 비교하여 높아졌음.



&lt;그림 5&gt;

2011년 2분기 수출기업 애로사항 비율



자료: &lt;표 1&gt;과 같음.

○ 대부분 산업의 경우 위의 세 가지 외에도 인건비 상승(18.5%), 국내기업 간 출혈경쟁(12.3%), 높은 물류비용(9.7%)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음.

&lt;표 7&gt;

2011년 2분기 산업별 수출기업 애로사항 비율

단위: %

구분	석유화학	철강 및 비철금속	전기전자	기계류	자동차	조선	섬유류	플랜트
원화환율 불안정	68.9	69.1	62.0	69.6	73.2	50.0	80.0	16.7
원재료 가격 상승	74.3	65.5	62.0	65.2	76.8	81.3	77.8	50.0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	43.2	58.2	34.3	34.8	26.8	37.5	37.8	50.0
국내기업간 출혈경쟁	9.5	10.9	13.0	17.0	3.6	18.8	6.7	50.0
인건비 상승	13.5	12.7	20.4	17.0	26.8	25.0	22.2	33.3
선진국기업의 견제	6.8	3.6	4.6	7.1	1.8	0.0	2.2	0.0
높은 물류비용	6.8	7.3	11.1	9.8	23.2	12.5	0.0	0.0
높은 금융비용	8.1	12.7	4.6	8.9	7.1	6.3	6.7	50.0
신규대체상품 출현	4.1	1.8	8.3	0.0	0.0	0.0	4.4	0.0
수출대상국의 수입규제(고관세)	4.1	0.0	9.3	4.5	3.6	0.0	0.0	0.0
자금부족	1.4	0.0	4.6	3.6	7.1	12.5	8.9	0.0
인력부족	1.4	1.8	8.3	11.6	5.4	12.5	6.7	16.7
수출금 회수에 어려움	0.0	0.0	2.8	2.7	1.8	0.0	0.0	0.0

자료: &lt;표 1&gt;과 같음.